

고려인삼의 재배 역사와 본초학적 고증을 통한 인삼 기미 고찰

고성권¹, 임강현^{2*}

1: 세명대학교 한방식품영양학부 2: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Discussion of Ginseng Properties through a Historical Research of Korean Ginseng

Sungkwon Ko¹, Kanghyun Leem^{2*}

1: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Food & Nutrition, Semyu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ginseng properties by historical research.

Methods : Historical documentary records of ginseng were used to develop this review.

Results :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search, the first Korean ginseng cultivation started from the *Koryo* Dynasty around A.D. 1000. Later, during the *Chosun* Dynasty around A.D. 1500~1600, the ginseng cultivators established a method of cultivation. *Gasam* (cultivated ginseng) was cultivated ginseng on the skirts of their domicile. It was reported that *Gasam* cultivation was broadened throughout the country around A.D. 1790 on *Cheongjosilrok*. On the other hand, ginseng properties were reported slightly cool in the oriental herbal medicine books from A.D. 250 to A.D. 1600. But, they were reported slightly warm or warm after A.D. 1600.

Korean ginseng cultivation started in the *Koryo* Dynasty around A.D. 1000. Later,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ginseng cultivators established a standard method of cultivation. *Gasam*, cultivated ginseng, was grown on the outskirts of their domicile. It was reported that *Gasam* cultivation was broadened throughout the country around 1790 A.D. in *Cheongjosilrok*. On the other hand, ginseng properties were reported slightly cool in the oriental herbal medicine books from 250 to A.D. 1600, but they were reported slightly warm or warm after A.D. 1600.

Conclusions : It suggests that ginseng properties (slightly cool) before A.D. 1600 are wild ginseng. Also, wood-grown ginseng and ginseng properties (slightly warm, warm) after A.D. 1600 are Gasams.

Key words : Ginseng, properties, *Gasam*, Wild ginseng, Woods grown ginseng

서 론

우리나라 원산식물인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2000여 년 전부터 동북아시아에서 補元氣劑로 사용되어 온 중요한 한약 중의 하나이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神農本草經》에 인삼은 五臟을 보하고, 元氣를 보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 인삼의 氣味 藥性에 있어서는 A.D. 250년경의 《神農本草經》에서부터 A.D. 1500

년대까지의 본초서에는 微寒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A.D. 1600년 이후의 본초서에서는 微溫 또는 溫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삼은 생육환경에 따라서 산에서 야생하는 것을 산삼 또는 야생삼이라고 하고, 산림에서 직파 또는 이식 재배하는 것을 산양삼 또는 장뇌삼이라고 부르며, 밭이나 논에서 재배하는 것을 인삼이라고 부른다¹⁾.

인삼의 주요한 생리활성물질은 인삼사포닌(ginsenosides), polyacetylenes, 산성다당체, 인삼단백질, 페놀성 물질 등

* 교신저자 : 임강현,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 Tel : 043-649-1341 · E-mail : heavenok@dreamwiz.com
· 접수 : 2009년 8월 10일 · 수정 : 2009년 9월 23일 · 채택 : 2009년 9월 23일

이 알려졌다. 산양삼과 재배삼의 인삼사포닌 및 비사포닌 성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²⁾, 고 등³⁾에 의하여 보고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재배역사와 본초학적 고증을 통하여 산으로부터 평지 경작지로의 인삼 생육환경 변화가 성분 및 기미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론

1. 재배 역사

인삼 재배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중국 송나라 인종 때 편찬한 《圖經本草》(A.D. 1061)에, “봄에 묘를 띄운다. 초생은 작아서... 4, 5년 후 양아 오염을... 10년 후에 이르러 삼이를 낳는다”고 인삼의 생육연생에 따른 외부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세한 생육연생에 따른 외부특징의 언급은 재배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⁴⁾.

송나라 徐兢이 지은 《高麗圖經》(A.D. 1123)에서 인삼을 生蓼과 熟蓼로 나누고 있는 기록으로 볼 때 인삼을 썰서 만드는 紅蓼의 제조의 최초 언급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이미 삼을 썰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썰 수 있을 만큼의 삼을 양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삼을 썰서 홍삼을 만든다는 것은, 인삼의 장기적 보존을 목적으로 가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뿌리를 포개서 두둑하게...”했다는 기록은 삼의 수확이 일시에 상당한 양이었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삼을 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삼을 재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다⁵⁾.

송나라 唐愼微의 《證類本草》에서 인용한, “2, 4, 8월 상순에 뿌리를 캐어 죽도로 껍질을 긁어 별에 말린다”는 등의 기록을 볼 때, 백삼의 제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역시 인삼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삼재배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기록은 A.D. 1578년에 완성한 명나라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 볼 수 있는데, “10월에 씨앗을 뿌리는데, 채소를 심는 방법과 같이 파종한다”라고 하였다. 지금도 인삼의 종자는 후숙 처리 후 가을에 파종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본초강목》이 편찬되었을 무렵에는 인삼 파종 재배의 중요한 포인트인 ‘개갑’이라는 인삼종자의 후숙 처리 기술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조선시대의 洪萬選(A.D. 1643~1715)의 《山林經濟》에는 중국 朱權의 《神隱志》에서 인용하여 “채소를 심는 방법으로 심되 다만 비토로 두둑을 만들고 심어야 한다”고 기록하여 재배포 관리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인삼을 지칭하는 ‘家蓼’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의 정조14년(A.D. 1790) 기록이다. 일본의 이마무라는 이것에 근거하여 정조 연간에 인삼재배가 경상도 지방에서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마무라, A.D. 1936). 이마무라는 단지 ‘家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근거로 인삼재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다. ‘家蓼’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산에서 채취하던 인삼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재배됨으로 해서 채삼의 인삼(野生蓼)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간에서 비밀리에 山養蓼을 재배하던 시절에는 採蓼인 蘿蓼(산삼)과의 구분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구분은 오히려 불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家蓼’의 등장이 곧 인삼재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집 근처 논밭에서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기록에는 《조선왕조실록·세종장헌대왕실록·지리지》에 ‘山蓼’과 ‘人蓼’이 함께 사용되었고, 이후 숙종 9년(A.D. 1683)에 폐사군에 4진 설치를 논하면서, “땀을 개간하면 초피와 산삼의 이익도 끊어지는 것이고...”, 숙종 13년(1687)에 함경도어사 이만원의 계에, “을축년(숙종11년, A.D. 1685)에 산삼 채취를 금한 후로부터...” 등에 ‘산삼’이 등장하고 있다. A.D. 250년 《神農本草經》부터 A.D. 1600년경까지 야생삼 및 산양삼을 ‘인삼’이라는 단어로 표시하였으나, 재배삼이 등장함으로써 ‘산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산삼’의 등장은 재배한 인삼과 구별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삼재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록에 의한 인삼재배만을 주장한다면, 인삼재배는 정조 연간이 아니라 ‘삼전’을 언급하고 있는 숙종 연간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 《비변사등록》 영조 25년(A.D. 1749) 2월 15일 기사에, “관동지방에서 화전을 일구어 삼발을 만드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영조 37년(A.D. 1761) 3월 17일 기사에, “평안감사의 장계에 삼농사가 점차 황폐해 간다”고 했으며, 6월 22일에는, “강계의 삼농사가 감축되면서 삼값이 올랐다”고 하며, 영조 51년(A.D. 1775) 10월 21일 기사에는 “금년에는 삼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지만...” 등의 기록으로 볼 때, 이때 이미 인삼이 재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조선왕조실록》의 단편적인 기록에서도 인삼재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었는가 하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조실록> 21년(A.D. 1797) 3월 14일 첫 번째 기사에, “역관들이 팔포에 삼을 쓰는 것은 고레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집에서 재배한 삼이 다소 여유가 있고...”라 하여 인삼의 재배가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 그리고 서유구(A.D. 1764~1845)의 《임원십육지·관후지》에도 《종삼보》에 의거하여 인삼의 명칭, 인삼의 종자 처리, 적절한 토양조건, 생장, 수확 이용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인삼과 인삼재배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이러한 책자의 등장은 인삼 관련 지식과 기술이 보편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종삼보》(저자미상), 《종삼법》 같은 특수전문서의 출현은 인삼재배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빙허각 이씨(영조 35년~순조 24년, A.D. 1759~1824)의 《규합총서》(A.D. 1809)는 ‘家蓼’에서 삼 심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수채법(收採法)’에서 삼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생삼 무게 4전을 건조하고, 건삼 일전을 건조하면 같은 양의 건삼을 얻을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규합총서》가 여성들을 위한 책이었으며, 당시 여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인삼재배 기술의 보편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본의 차이는 있지만, 산중에 사는 즐거움(山家樂) 셋 가운데 하나로 '삼을 키우는 것(種家蔘)'이라 하며 하나의 편명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인삼재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순조 8년(A.D. 1808)에 왕명으로 편찬한 《만기요람》에서 사용하는 蔘田, 蔘種, 蔘火, 蔘火結, 蔘火結役, 蔘火稅, 蔘火田 등의 용어에서 삼밭의 존재와 삼의 파종, 화전으로 삼밭을 개간한 편린들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순조실록> 21년 11월 29일 첫 번째 기사에는, “신(개성 유수 오한원의 상소)이 살펴본 바로는, 영의 주 민들이 대부분 인삼재배를 업으로 삼고 있는데 매년 북 경에 들어가는 홍삼은 오로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 개성에서 인삼재배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인삼의 재배는 적어도 A.D. 1000년경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산삼'이라는 표현을 쓴 조선시대 세종조(A.D. 1419~1450), 숙종조(A.D. 1675~1720)를 거치면서 인삼 재배 기술에 관한 서적의 편찬, 유통 등으로 재배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숙종조, 영조조(A.D. 1725~1776)에는 산간에서 재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정조조(A.D. 1777~1800)에서는 공개리에 집에서 삼을 재배하였고, 순조조(1801~1834)에는 인삼 재배가 산 속에 사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일 만큼 삼을 재배하는 것을 즐겼고(《규합총서》, A.D. 1809), 이윽고 개성에서 집단으로 재배하여(A.D. 1821)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

2. 인삼 기미변화

인삼의 氣味에 있어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 250년경의 《神農本草經》에서부터 A.D. 1500년대까지의 본초서(《珍珠囊》, 《千金翼方》, 《新修本草》, 《大觀本草》, 《鄉藥集成方》, 《本草綱目》)에는 微寒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A.D. 1600년 이후의 본초서(《景岳全書》, 《及幼方》, 《本草從新》, 《本經疏證》)에서는 微溫 또는 溫으로 기록되어 있다⁸⁾.

역사시대 이전 동북아시아의 전설적인 황제인 神農氏에 의해서 저술되었다고 전해지는 《神農本草經》은 약 5,000여 년 전부터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고 2,000여 년 전(後漢, A.D. 100~250)에 기록의 시대로 전승되고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학서이다.

원전에는 “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 輕身 延年”이라고 하여 인삼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곧 五臟을 돈구어 주는

主藥으로 사용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가슴 두근거림을 멎게 하고, 우리 영혼을 바르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편안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고 하였다¹⁾.

Table 1. The Properties of Ginseng in the Book of Oriental Medicines at Various Ages

時機	藥性		備考
	微寒	微溫, 溫	
A.D. 250	《神農本草經》	-	後漢(中國)
A.D. 500	-	《名醫別錄》	梁(中國)
A.D. 700	《千金翼方》	-	唐(中國)
A.D. 700	《新修本草》	-	唐(中國)
A.D. 1000	《大觀本草》	-	北宋(中國)
A.D. 1200	《珍珠囊》	-	金, 元, 南宋(中國)
A.D. 1433	《鄉藥集成方》	-	朝鮮時代(韓國)
A.D. 1597	《本草綱目》	-	明(中國)
A.D. 1600	-	《景岳全書》	明(中國)
A.D. 1749	-	《及幼方》	清(中國)
A.D. 1770	-	《本草從新》	清(中國)
A.D. 1790	-	《本經疏證》	清(中國)
A.D. 1800	-	《方藥合編》	朝鮮時代(韓國)
A.D. 2000	-	《中藥大辭典》	中華人民共和國(中國)

이와 같은 효능은 현대 약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리작용을 주효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性은 微寒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약성 및 효능은 명나라 때 李時珍(1518~1593년)의 저서인 《本草綱目》에까지도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양나라(AD 500)때의 陶弘景의 저서인 《名醫別錄》에는 微溫으로 기록되어 상이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때 저명한 한방의서인 《方藥合編》을 비롯하여 현대 중국의 《中藥大辭典》에 이르기까지 모든 본초서에서는 인삼의 약성을 따듯하다고 하는 溫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임상가에서도 인삼은 따듯한 한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서 효능에 있어서도 元氣를 보해주는 보기제로서의 효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효능의 일부는 현대 약리학적으로 항피로작용을 근간으로 하여 중추신경을 흥분하는 작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¹⁾.

결론

고려인삼의 氣味 및 效能의 변화는 시대를 거치면서 AD 250년에서 1600년까지 微寒으로 기록되어 있고, A.D. 1600년 이후에는 微溫 또는 溫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에서 인삼재배가 1400년대 이후에 활발히 시작되었다는 기록으로 추정해 보면, 14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산양삼의 재배가 재배삼의 재배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의 시대로 볼 수 있고, 家蔘을 언급한 정조대(A.D. 1790)에서는 재배삼이 본격적

으로 재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분학적 연구 결과로는 산양삼에서 재배삼에 비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ginsenoside Rb1, Rd, Re 등의 인삼사포닌 성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²⁾. 이와 같은 본초학 문헌고증과 성분화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야생삼(산삼, 산양삼)의 氣味를 微寒으로, 家蓼(재배삼)의 氣味를 溫 또는 微溫으로 본초서에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Ko SK, Kim YS, Kim YY, Kim JK, Mok SK, Park JD, Shin CG, Im BO, Jeong JH, Jeong HB, Choi YH, Ham YT. The understanding of Korea Ginseng. Seoul : The publishing company of Chung-Ang university. 2005 : 10.
2. Han ST, Shin CG, Yang BW, Hahm YT, Sohn UD, Im BO, Cho SH, Lee BY, Ko SK. Analysis of Ginsenoside Composition of Woods Grown Ginseng Roots. Food Science & Biotechnology. 2007 ; 16 : 281-4.
3. Yang BW, Im BO, Ko SK. Non-saponin composition and contents in wood grown ginseng roots. 한국산삼학회지. 2006 ; 2 : 21-5.
4. 김홍대. 한국의 산삼. 김영사. 2006 : 24.
5.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태학사. 2003 : 131.
6.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1982 : 영조 25년, 37년, 51년 기사.
7. 박봉우, 김용환. 고려인삼 시원지 고찰 및 재배역사. 국제산삼심포지움 발표논문집. 2009 : 3-12.
8. 안덕균. 인삼의 기미 고찰.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75 ; 2 : 49-53.